

#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득의

문 선 희\*

## I. 서론

루터는 1518년 하이델베르그(Heidelberg)에서 그의 “새 신학”(New Theology)을 어거스틴 수도회의 독일 총회 앞에서 설명하고, 변호하도록 요청되었다. 이 때 제시된 것이 하이델베르그 논제이며, 이 논제에서 루터는 후에 “십자가 신학”(Theologia crucis)<sup>1)</sup>이라고 불려지는 그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였다. 처음 의 루터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과 관련된 것

---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교회사)

1)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Luther's Theology of the Cross)은 로마서 강의에서 이미 그 사상이 등장하고 있지만(WA 57, 114, 2),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강의(LCC 16, 233-234; WA 57, 29)에서 처음 등장한다. Loewenich 1982, 101

이었고, 이로 인해 그의 신학 전체는 다시 검토되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을 제시하였던 것이다.<sup>2)</sup> 이러한 관점과 함께 뢰벤 니히가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은 그의 전 신학을 관통하는 한 원리<sup>3)</sup>라고 주장하였다.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은 그의 신학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이 루터의 “득의”(Justification)를 해석하는데 근거를 제공한다는 이해 가운데 그 토대 위에서 루터의 “득의”的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루터의 “십자가 신학”

### 2.1. 하이델베르그 논제의 구조

1518년 “면죄부와 은총에 대한 설교”(Sermon on Indulgences), “95개조 논제에 대한 설명”(Explanations of the 95 Theses)이 출판된 해에 어거스틴 수도회 총회가 하이델베르그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 때 루터가 개진한 하이델베르그 논제의 주제는 면죄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 의, 십자가에 관한 루터의 견해였으며, 후에 이 논제는 그의 십자가 신학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라고 언급되어 왔다.<sup>4)</sup>

- 
- 2) 십자가의 신학은 하나님의 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루터의 발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 Loewenich 1982, 12-13. 이와 유사하게 Prenter도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단순히 그의 신학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신학 즉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안티테제들의 기초가 되고 있는 통일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의 신학이라고 보았다. Prenter 1989, 140

##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득의

보른캄(Heinrich Bornkam)이 개혁신학에 있어서 하이델베르그 논제는 모든 루터의 논제 중 가장 강한 영향을 끼친 것이었다<sup>5)</sup>고 설명하였다시피 하이델베르그 논제의 신학적 논제들<sup>6)</sup>은 루터의 심오한 사상들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 구조는 그 사상들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sup>7)</sup> 따라서 하이델베르그 논제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루터의 신학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본다.

보른캄은 전체 논제의 구조가 두 개의 기둥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둥은 하나님의 율법이며, 둘째 기둥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전체 논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옮겨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십자가의 신학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적한다. 즉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길이란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sup>8)</sup>

포드(Forde) 역시 그 논체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처음의 18개 논제들은 율

4) Loewenich 1982, 122

5) Bornkam, Heinrich. 1975. "Die theologischen Thesen Luthers bei der Heidelberger Disputation 1518 und seine theologia Crucis", in *Luther, Gestalt und Wirkungen*, Schriften des Vereins für Reformationsgeschichte, vol. 5, no. 188. Gu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30. Quoted in Forde 1997, 19

6) 그 서문에서 루터는 그의 논제들을 "Paradox"라고 불렀다. 그것은 성 바울과 그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해석자인 어거스틴으로부터 배운 것이었다. 루터는 이것들은 "신학적 역설들"이라고 불렀다. 그와 같은 역설적 형태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스콜라신학의 통치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 개혁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전략이었다. 루터는 엄격하게 바울과 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해석자"인 어거스틴의 권위에 그의 역설들을 호소했다. 이 논쟁의 목적과 그 증거들은 그것들이 이 두 권위로부터 나올 것임을 보여준다. Forde 1997, 21

7) Bornkam 1975, 130

8) Bornkam 1975, 133

법, 선행 그리고 의지의 자유 등을 다루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 윤법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면서, 인간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 안에서 자신의 “낯선 사역”을 수행한다. 이 낯선 사역은 인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두려움을 통해서 유일한 인간의 공로가 된다.<sup>9)</sup> 그는 논제 19-28이 특의와 십자가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한다고 본다. 이러한 분석 역시 보른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첫 부분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에 대한 이해이며,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의 십자가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페르크루이제(Vercruyse)는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는데, 그는 이 논제를 네 부분으로 나눈다. 첫째는 논제 1-12로 죄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인간의 행위의 본질과 가치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논제 13-18로, 죄를 피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무능력을 다루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인 논제 19-24는 “위대한 분리” 즉 영광의 신학자와 십자가의 신학자의 분리로서 이러한 질문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대조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 부분(논제 25-28)은 전체 움직임의 극적인 결과를 선언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들을 존재에로 이르게 하는 창조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모든 인간적 가능성의 고갈될 때 그리고 인간이 무의 존재가 될 때, 무로부터 창조하는 자가 그의 “고유한 일”을 한다.<sup>10)</sup>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이 논제에서 루터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신학으로 연결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낯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이며,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특의의 방법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

9) WA 1, 356, 33ff

10) Vercruyse, Jos E. 1981. “Gesetz und Liebe, Die Strukture der ‘Heidelberg Disputation’ Luthers[1518]”, *Lutherjahrbuch* 48. Quoted in Forde 1997, 22

## 2.2. “십자가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

포드는 1997년 *On Being a Theologian of the Cross*를 출판하였는데, 그가 서문에서 밝힌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세 가지 이유는 “십자가 신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점들을 제공해 준다. 첫째는 십자가의 신학이 무엇인가, 다른 신학과 무엇이 다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sup>11)</sup> 둘째는 십자가의 신학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감상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즉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통 안에서 인간과 동일시된다고 하는 등의 해석에 대한 경계이다. “하나님의 고난” 혹은 “하나님의 약함”은 오늘날 교인들의 심리를 자극하기를 원하는 설교가나 신학자들이 이용하는 것이다.<sup>12)</sup> 그러나 십자가의 신학은 감상주의가 아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죽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루터가 지적하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작용되는 자가 아니라(*operated upon*), 작용하는, 그 행위를 주관하는 자(*operator*)인 것이다.<sup>13)</sup> 그렇게 하여 인간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행위를 경험하는 것이다.<sup>14)</sup> 감상주의 신학은 인

---

11) 포드는 Loewenich의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1976)는 십자가의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루터의 신학적 발전에 관해서 많이 기술하고 있으며, McGrath의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1985)는 십자가의 신학을 다룬다기 보다는 루터의 발전에 대한 해석이라고 비판한다.

12) 포드는 ‘비극은 친구를 사랑한다’가 이 같은 신학의 잠정적인 모티브라고 비판한다.

13) *Heidelberg Disputation*, Thesis 27. In Forde 1997, viii

14) 다시 말해서 옛 존재로서 인간은 그 같은 행위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 ‘수동적’이 된다. ‘passive’는 ‘passion’과 같은 어원을 갖는다.

간이 알지 못하는 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고 희생당한다는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고통 당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참된 십자가의 신학은 이러한 종류의 감상주의에 대항하여 단호한 질문을 한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연관이 있다. 감상주의는 초점을 흐리며, 그 언어는 빗나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분명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희생자라는 주장<sup>15)</sup>이 그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복음적이라기 보다는 치료적이 되어 가는 것이다.

루터 자신은 십자가의 신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술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넘어지고, 다시 일으켜진 자들에 대한 설명한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는 하이델베르그 논제는 먼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의 선행의 자리에 대한 모든 사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sup>16)</sup>

### 2.3. “영광의 신학” 과 “십자가 신학”

나이브는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그의 신 개념과 연결시킨다. 신 개념에 있어서 스콜라주의는 방향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첫째로 스콜라주의는 사변적 철학을 방편으로 삼아 하나님의 절대성을 논증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존하며, 자족하는 존재로 묘사하였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신 관념은 윤법주의적 도덕주의적 체계로 형성되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은 합의를 본 계약 당사자들로서 동일한 수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그의 행동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

---

15) 포드는 현대인은 더 이상 죄인이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16) Forde 1997, xii

##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득의

에 없었다. 루터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루터는 스콜라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규정하며, 십자가의 신학과 대조시켰다.<sup>17)</sup> 그는 진정한 신학의 본질을 십자가의 신학으로, 이것의 반대를 영광의 신학으로 서술하였는데, 십자가의 신학에 대한 루터의 기본적 진술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신학이 가지는 현저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모든 형이상적 개념으로 진술된 하나님에 관한 교리는 거부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순수한 종교적 신관념이 확립되었다.<sup>18)</sup>

루터는 로마서 1:20<sup>19)</sup>을 언급한다. 그 구절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을 능력, 신성, 지혜, 의, 선함 등으로 묘사한다. 그런데 루터는 이 구절을 이용하여 거짓 신학의 특성을 설명한다. 그는 이 구절에서 묘사된 종류의 신학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마서 1:20에서 묘사된 신학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가능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오용하였고,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인간들을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게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은 인간을 가치 있거나 자혜롭게 만들지 못한다.”<sup>20)</sup> 십자가의 신학이 없다면, 최고의 통찰이 가장 나쁜 방법들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sup>21)</sup>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 사이의 대결에 놓인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의지의 문제 즉 죄의 문제이다. 영광의 신학은 항상 의지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하며,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매력적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학은 의지가 속박되어 있으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루터는 하

17) WA 1, 613, 21ff

18) Neve 1992, 438

19) 로마서 1:20 :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20) WA 1, 361, 34

21) *Heidelberg Disputation*, Thesis 24

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철학적 방법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이르는 신학적 방법을 명확하게 구별해 놓았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합리적 탐구에 몰두하는 철학은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으며, 그러한 철학적 사변은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죄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루터는 잊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보이는 그의 등 뒤(*posteriora, backside*)에 대한 지식이다. 루터는 “*posteriora*”(*backside*)라는 표현을 가지고 출애굽기 33:23을 암시한다. 거기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그의 뒷모습을 보는 것은 허락되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은 보이는 본성과 대립된다. 그의 등은 그의 얼굴의 영광과 대립된다. 그의 보이지 않는 본성은 그의 장엄한 속성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그의 보이는 등은 비하, 약함, 어리석음으로 묘사된다. 영광의 신학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하는 요한 복음에서의 빌립의 질문과 일치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이유로 참된 신학과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다.<sup>22)</sup>

이러한 이해를 통해 이제 루터는 창조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하는 자연 신학과 사색적 형이상학, 즉 종교적 지성주의는 도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행위의 의와 동일한 범주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양자의 일치를 인식하여,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 반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sup>23)</sup> 이 둘이 십자가에 반대된다는 것은 루터 신학의 가장 중요한 통찰력에 속한다. 왜냐하면 양자

22) “요한 복음에서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답하신다. 왜냐하면 참된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LW 31, 53

23) Althaus 1970, 44

##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득의

는 둘 다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두 길은 사람을 교만으로 이끌거나 아니면 이미 그 자체가 그런 교만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둘 다 인간의 자아를 부풀게 한다.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의 분명한 신적 능력, 지혜, 영광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반면 십자가의 신학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는 곳에서, 그의 고난 가운데서, 영광의 신학이 약하고 어리석다고 간주하는 모든 곳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리하여 영광의 신학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끌고, 율법을 성취할 때 자신의 윤리적 성취에 기초하여 흥정을 벌이지만, 십자가의 신학은 인간을 고난받기 위하여 부름 받은 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면서, 자유로운 존재로의 가능성을 갖는다.<sup>24)</sup>

죄인의 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은 화육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인간에게 계시하신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가 된다.<sup>25)</sup> 만약 십자가의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영광의 이야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식으로의 모든 상승은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 이루어진 지식을 제외하고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곱의 사닥다리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서두르는 자는 절망의 심연에 서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다른 사역에서 하나님은 그의 권능, 지혜 및 공의의 위대성에 따라 인지되며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사역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의 가장 온유한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의 권능과 지혜의 사역들을 안심하고 명상할 수 있다.<sup>26)</sup>

24) 십자가는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신학은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실천적인 것이었다.

25) Forde 1997, 8

즉 영광의 신학은 인간의 하나님으로의 상승운동이지만 십자가의 신학 즉 참된 신학은 죄된 인간에게로 하나님이 하강하신다는 것이다.

### 3. 득의에 있어서 십자가가 가진 두 가지 주제

루터는 인간의 타락 이후 참된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십자가의 신학만에 참된 하나님 지식으로 인도하여,<sup>27)</sup> 인간은 하나님 이 어떤 분이라는 것과 그가 인간에게 뜻하시는 바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것은 먼저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이다.

#### 3.1.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실재들이 숨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력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력함과 비천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의 분노 아래 숨겨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의 은혜와 선물은 십자가 아래 숨겨져 있다. 이교도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왕이라는 주장이 걸림돌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이성이나 경험에 모순되는 것이었다.<sup>28)</sup> “그는 자신의 원수들에 저항하실 수 있었을 모든 그의 능력을 버리셨

---

26) WA 4, 627

27) Althaus 1970, 50

##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득의

으며 어쨌든 자신을 인간의 허약에 복종시키셨다.”<sup>29)</sup> 그의 신성한 사역들조차도 그의 수난의 비하 속에 감추어졌으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강림 하셨다.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서 인식되기를 바라셨고, 보이는 것들과 관련된 지혜라는 수단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과 관계된 지혜를 전수하시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분명해지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고난 속에 감추어진 자로서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다....이제 그것은 모든 이에게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을 겸손과 십자가의 수치 속에서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영광과 위엄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그에게 선한 일이 되지 못한다. 이사야가 “진실로 당신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했던 바와 같다.<sup>30)</sup>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의 신성을 감추고, 한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오시기 위하여 스스로 허약한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던 것이다.<sup>31)</sup> 이러한 하나님의 감추이심은 하나님의 낮추심을 의미한다.

또한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심판의 상징으로서 자기 확신적 도덕주의적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실패하는, 사랑하는 대상을 구하기 위하여 그에게로 오시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절대적으로 반대된다. 인간의 사랑은 그것을 기쁘게 하는 매력에 의해서 일깨워진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하지

---

28) Althaus 1990, 47

29) WA 3, 121

30) WA 1, 361, 34

31) WA, 4, 647; 1, 201

않은 것으로 흘러간다는 사실로 이 주제를 증명한다.

[이 논제의] 처음 부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악한 인간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그리고 약한 자들을 의롭고, 선하고, 현명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선함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나와서 선함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매력적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사랑은 죄인들과 악한 자들을 피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13) 이 모든 것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다. 그것은 십자가의 신학의 결과이다.<sup>32)</sup>

하이델베르그 논제 27<sup>33)</sup>의 ‘작용시키는 힘’의 가장 심오한 본성은 이제 선언되었다. 그것은 사랑, 무로부터 창조하는, 존재에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인간의 득의의 근거이다.

### 3.2.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로 십자가의 신학이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방법과 내용에서 대조된다. 십자가는 그 능력에 있어서 첫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이며, 둘째로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동시에 그것은 진정한 죄의 자리는 육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포부 즉 인간의 “영광의 신학”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십자가는 새로운 것의

---

32) LW 31, 57

33) “그러므로 올바르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일은 작용시키는 힘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 작용(됨)으로, 우리의 작용은 작용시키는 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득의

부활의 예상 속에서 옛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는 그리고 십자가만이 죄인의 옛 자아와 그 신학에 대항하여 새로운 그리고 들어 보지 못한 가능성을 열 수 있다.<sup>34)</sup>

루터에 따르면 십자가에 의한 죽음은 먼저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 계시와 만날 때 즉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경건한 기만을 죽이며, 어떤 다른 나갈 길이 있다는 생각을 죽인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신학은 이 “나”가 죽어야 하며 그래서 새로운 “나”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그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하는데, 인간 대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것이 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그것이 인간 자신의 죽음이 될 때 그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숙고하는 것은 반드시 그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35)</sup> 그리고 그때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이 시작된다.<sup>36)</sup>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 안에 그의 의지를 드러내시고 일하신다. 즉 하나님은 개인의 삶 속에 들어와서 옛 것을 죽이고, 새 것을 살려내시는 것이다. 하이델베르그 논제의 근본적 질문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있게 하는 그 의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결국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 참으로 부활 없이 그리스도의 신학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활이 일어나려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하였다. 그 후에 새 삶이 시작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으로 자아-가치에 대한 새

---

34) Forde 1997, 1-4

35) 영광의 신학은 Ernest Becker의 용어로 한다면, “죽음의 부정”(The denial of death)을 전제로 하는 신학이다. Forde 1997, 18

36) Forde 1972, 39

로운 의미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의 신학에서 그러하듯이, 그 자신들을 개선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을 받을 만하게 만드는 혹은 용인 받기 위해 공로를 쌓는 그러한 자들을 용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악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선을 부여하시는 분이다. 하이델베르그 논제의 전제는 부활에의 소망으로,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가져오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nothingness)가 되어 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사랑에 의해서 부어지는, 의롭게 하시는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된다.<sup>37)</sup> 요컨대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 인간이 옛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까지 포함한 옛 것을 끝내는 어떤 것을 불러일으킨다.<sup>38)</sup> 그것은 신생에의 부름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새 피조물을 만드는 힘이다.

그의 자리에 새 사람, 신앙의 사람이 출현하였다. 이제 신앙에 의한 득의라는 종교개혁의 중심 가르침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지 않겠는가”라는 질문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20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인간 또한 그와 함께 못 박힌다. 그것이 루터가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라고 한 것의 의미이다. 루터는 “그리스도 수난의 실제의 그리고 참된 행위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확증하게 하는 것이다.”<sup>39)</sup>라고 하였다.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며, 신앙의 시작이다.<sup>40)</sup>

---

37) Forde 1997, 114

38) Forde. 1972. 35. 한편 오버만은 십자가의 신학은 꾸준히 더 나아가서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는 것 가운데서 교회의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고 한다. Obermann 1992, 249

39) LW 42, 10

40) Forde 1997, 9

### 3.3. 그리스도와의 동일화

신앙이 창조될 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에 도달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간에게 의도한 상태는 재창조되었으며, 원래의 창조의 평화가 인간에게 돌아왔다. 그리스도가 신앙을 가능하게 하고, 그의 의는 신앙에 의해서 인간의 것이 된다. 루터가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인간에게 전가되었고 (imputed), 주어졌다(given).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신앙을 창조하고, 새 피조물을 만든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의가 되시며 그리고 그의 공로들이 하나님에 의해 인간에게 전가된다.<sup>41)</sup>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그의 생활에서 현재적이고 활동적인 실재로서 체험한다. 이 결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내부의 어떤 활력이 되시며, 그것은 그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선의 법과 양식이 된다.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죄사함을 전달해 준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와 이상적인 의미로 인간을 선하게 만든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열정은 동일한 것을 위한 인간의 열정을 자극한다.<sup>42)</sup> 그는 그의 제자들 속에 계속해서 살아 계시며, 그리고 모든 선을 행하도록 그들을 자극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믿는 제자에게 조용히 있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조용하게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살아서 활동하기 때문이다....우리가 살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사시며 활동하시며 말하시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자극하시는

---

41) WA 1, 140.

42) 모범으로서의 의미로, 이는 비일의 영향이다.

그의 활동에 의해서 성취되기 때문이다.<sup>43)</sup>

여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사상이 등장한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안에 거주한다는 사상은 전통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도 순수한 신앙에 의존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루터의 구분되는 해석이 있으며, 그의 일관된 사상이 흐르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기쁜 교환”<sup>44)</sup>(Joyful, Happy exchange)을 언급한다. 이는 성 레오(St. Leo)의 설교로 영감된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서에 있는 용어인데, 루터는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한다. 그 본래의 사상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인을 그의 신성에의 참여로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 승리를 준 것은 신성에 접근하려는 인간의 욕망으로, 이것이

---

43) WA 4, 646

44) 조직신학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속성의 교류”와 연결시킨다. “속성의 교류”란 신성이 그 특성을 인성에 전달하며, 그리고 인성도 역시 그 답례로 그것의 특성을 신성에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게 연합된 “통일된 하나의 인격”(one single person, WA 30, 63, 200f)이므로 한 본성이 존재하는 곳에는 다른 본성도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루터는 생각했다. Seeberg 1985, 446-7. 이와 같이 “속성의 교류”的 관점에서 루터는 신성과 인성의 유기적 결합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의 유기적인 관계는 루터의 기독론을 넘어서서, 그의 전 신학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참으로 루터의 신학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유기적인 관계의 기초 위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루터의 신학을 올바로 평가할 수 없다...속성의 교류를 통해 그리스도와 성도는 “놀라운 성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fides apprehensiva Christi)이다. Neve 1988, 345. 이는 그리스도를 한 인격으로 보려는 실존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떠한 분이신가에 그의 모든 관심이 있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한 인격으로 만나는데 실존적 관심이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속성의 교류”는 그리스도에 대한 한 신앙의 표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형이상학적 사색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Watson 1990, 228

##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득의

Platonism의 영향임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루터는 복음에 대한 그의 개념에 의해서 “인간”과 “신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죄 많은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의”로 그 개요를 바꾸어 놓았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에 자신을 주시고 (단순히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인간이 됨으로써), 교환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를 인간에게 전달시키신다. 이러한 가르침은 에베소서 5:28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라는 비유에 대한 비유적(Tropological) 해석에 의존 한다. 본문에서 교회에 대해 말한 것은 이 경우에 신자의 영혼에도 적용된다. 한 법령 하에서 결혼한 배우자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영혼과 그의 의를 공유하며 죄 많은 상태를 함께 하는 것이다.<sup>45)</sup> 또한 루터는 같은 논문에서 ‘신앙은...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언급함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혼의 비유에서처럼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 즉 그리스도와 결혼 상태가 유지되는 한, 그리스도에 의존하는 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실제적인 소유이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구별이 혼잡하게 되는 성격의 연합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상들을 배경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사죄의 의미가 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교리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대리적 만족설이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승리설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을 고무시키는 모범이었다는 사상이다. 이전에 학자들은 루터가 대리 만족설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하였다. 좀 더 최근에는 루터가 승리 사상을 견지했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같은 용어를 어떤 때는 저것을, 어떤 때는 다른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사죄에 대한 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에게 있어 중요했던 것은 채용 가능한 사죄에 대한 다양한 사상이나 그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

45) LW 31, 335

이제 그 의미를 십자가의 신학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하나님아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의 아들을 보낸 정도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옛 것을 끝내고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루터가 대리 만족설을 거부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그 사상들이 너무 경박하다(통속적)는 것<sup>46)</sup>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안젤름(Anselm)에 반대해서 루터는 이 사상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형벌을 선택한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자리에서 죽었다. 그는 그 형벌 속으로 들어갔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자리에서” 죽었다. 즉 그는 인간이 죽어야 하는 자리에 완전하게 들어감으로써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 시켰다. 그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에 “앞서서” 죽는다. 인간과의 이러한 동일화로 그리스도는 인간 안에 있는 옛 아담을 죽이고, 인간의 죽음을 죽는다. 그리고 죽음에서의 그와의 이 동일화는 새 부활의 삶 속에서 그와의 동일화로 이끈다.<sup>47)</sup>

그리스도가 실제로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인간이 실제로 의로워지는 근거를 형성한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사죄에 관한 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실제적 성취에로 이끈다.<sup>48)</sup> 다시 한번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만이 참으로 인간을 도울 수 있다. 인간이 죽어야 하는 죽음을 죽은 자만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는 자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sup>49)</sup>

46) 이것은 하나님아 진노하는 통치자로서 인간이 침해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데 만 골몰하여 인간의 희생제물을 대속물로 요구하자 그리스도가 친히 자원하시는 것처럼 오해되었다. 여기서는 화해가 당위와 소유의 보상으로 보일 뿐이다. 김광식 1993, 162

47) Forde 1972, 43

48) 십자가의 신학과 그리스도의 사죄의 의미 역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이해를 돋는다.

#### 4. 그리스도의 성업과 득의의 두 가지 차원

고찰하여 본 바와 같이 십자가의 신학은 인간 중심성을 특히 종교적 율법주의에 있어서 인간 중심적인 표현을 반대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들의 업적으로 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성업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루터는 주장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인간은 모든 축복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생각하며 전적으로 그에게 구원을 기대함과 동시에 그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그리스도는 그가 가지신 것을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의가 되신다.<sup>50)</sup>

신앙은 당신과 그리스도를 마치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당신을 만들고, 그리스도를 만든다. 그가 “나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때 마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로부터 나뉘어질 수 없고, 그에게 밀착되어 있다.<sup>51)</sup>

그러기에 먼저 그리스도로 인해 득의의 과정이 앞으로 진전되는 동안에 그를 믿는 신자에게 아직도 매달려 있는 죄들이 신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sup>52)</sup> 그리

---

49) Forde 1972, 44

50) WA 2, 146

51) WA 40I, 285, 5-7(1531); “당신은 의롭다....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이다.” LW 27, 280

52) WA 2, 497; “죄가 육체에 잔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 동시에 의가 전가된다.

죄가 남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순전하다고 간주하시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의 의의 전가는 우리의 불결함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요컨대 “의롭게 된다”의 의미는 의롭다고 간주된다는 의미이다.<sup>53)</sup>

그리고 한 실제의 의도 가능하다.<sup>54)</sup> 그가 하나님의 역사로 의롭게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깅스는 그리스도 성취의 두 번째 의미는 그의 모든 것의 부여라고 주장한다.<sup>55)</sup>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이며,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그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의가 일차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실제적 의(iustitia propria)의 근거이며 원인이며 근원입니다.<sup>56)</sup>

더 나아가 루터는 이 외래적 의가 인간에게 스며들어 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 없이 다만 은혜로 인하여 – 물론 아버지께서 내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만– 우리 안에 스며들어 온 이 외래적 의는 원죄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행함 없이 다만 출생에 의해서 얻은 외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지식이 자라 가는 정도에 따

---

그것이 그것을 제거하고 있는 중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 것이다.” WA 2, 414

53) *The Disputation Concerning Justification*, LW 34:166

54) Siggins 1970, 157

55)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위대한 교환에 상응한다. Siggins 1970, 156

56) LW 31, 297-306

##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득의

라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옛 아담을 점점 더 몰아 내십니다. 왜냐하면 외래적 의는 한꺼번에 스며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어서, 진보하고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 죽음을 거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sup>57)</sup>

이와 같은 1519년 “두 종류의 의에 관한 설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루터는 1522년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많은 죄들이 잔존할 지라도] 은총이 넘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게 된다....우리의 대변자와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은총은 우리를 완전히 그 보호 아래 둔다.<sup>58)</sup>

그런데 루터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란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하였던 바<sup>59)</sup> 이러한 신앙이 성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거룩하게 하며, 인간을 그에게로 연합시키기 때문이다.<sup>60)</sup>

그러나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게 한다.[요한 복음 1:12f] 그것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그 마음, 영 그리고 사고(mind)와 능력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과 함께 성령을 가져온다.<sup>61)</sup>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의 동일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와 경험적 의의 시작에 이르는 것이다.<sup>62)</sup>

---

57) LW 31, 301

58) E 63, 124. Quoted in Seeberg 1985, 360

59) WA 28, 177, 11ff

60) WA 12, 287, 21

61) LW 35, 370

## 神學論壇

유형론적으로, [시 103:1의 진술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매우 위대하시다.”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것이다.] 우리가 이 친절함에 대한 인식과 찬양과 연호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 그는 그 자신의 위격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앙은 인식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옷 입히셨다. 왜냐하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고백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기 때문이다.<sup>63)</sup>

하나님에 의한 인간의 의의 선언은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에만 근거하고 있다. 루터는 그의 개혁 활동 초기에 이미 오직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만 인간의 위로와 확신의 근거를 발견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여전히 인간의 외부에 존재한다. 그리고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속적인 의는 신앙을 통하여 현재적인 의가 존재하기 시작한 사람에게만 소유된다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이다. 그 이유는 이 신앙 역시 인간 속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향상하는 현재적 의의 계속적인 진행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다. 인간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신앙의 실체와 능력이 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죄사함을 통하여 신자를 의롭다고 선포하신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인 것이다. 아니 오히려 이 의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러나 이 의는 내가 믿으면 나의 의가 된다.”<sup>64)</sup> “의롭게 만드는 의”의 의미는 아직 죄인이지만 이미 사실상 의로워지기 시작했다<sup>65)</sup>는 것이다. 의롭게 만드는 행위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sup>66)</sup> 그리스도에 의한 득의는 그

---

62) Siggins 1970, 59

63) LW 11, 317

64) E 3, 435. Quoted in Seeberg 1985, 362

65) 이것 역시 어거스틴의 영향이다. 인간은 완전히 의롭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존재에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득의

래서 의의 전가와 함께 의의 분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 5. 결론

루터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후에 “십자가 신학”이라고 불려졌다. 스콜라주의가 사변적 철학을 방편으로 삼아 하나님에 도달하려고 하여, 율법주의적 도덕주의 체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였던 것에 대해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으로 반대하였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합리적 탐구에 몰두하는 철학은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등 뒤에 대한 지식을 허락하신 것이다. 십자가의 신학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는 곳에서, 그의 고난 가운데서 영광이 약하고 어리석다고 간주하는 모든 곳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

루터는 이러한 십자가의 신학에서 득의에 있어서 영광의 신학의 상승운동에 반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티브를 제시한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한 죄의 죽음과 인간의 새 피조물로의 탄생으로 설명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 수준으로 낮추심으로 구체화되며, 그 능력은 모든 죄를 없애며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의 탄생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이러한 작용은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인간이 득의되는

---

66) Loewenich 1982, 85

## 神學論壇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신앙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한다. 그래서 인간은 신앙에 의해서 득의되며, 그 득의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그와 동시에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자신의 것이 된 그리스도 곧 신앙을 통해 신자의 마음에 살아 있는 그리스도만이 의가 되기 때문에 그 의는 여전히 낯선 것으로 남아 있다. 요컨대 루터에게 있어서 득의는 신앙에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존하는 전가이며 신생으로 따라서 득의된 인간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는 공식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Luther,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 Bohlau Nachfolger, 1930.
- Luther, Martin. *Luther's Works*. American Edition. Philadelphia and Saint Louis : Fortress Press and Concordina Publishing House, 1955.
- Althaus, P.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Translated by R. C. Schultz.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0
- Forde, Gerhard O. *On Being a Theologian of the Cross : Reflections on Luther's Heidelberg Disputation, 1581*.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 Loewenich, Walter von.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Translated by J. A. Bouman, Minneapolis : Augsburg, 1982.
- Neve, I. L.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I. 『기독교교리사』 서남동 역.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득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Obermann, H. A. *Luther: Man Between God and the Devil*. Translated by Eileen Wallister-Schwarzbart. New York : Image Books, 1992.

Prenter, R. “십자가의 신학”, 『루터신앙의 진수』 서울: 컨콜디아사, 1989.

Seeberg, R. *The History of Doctrines*. Vol. 2. 『기독교교리사 : 중·근세편』 김영배 역. 서울: 엠마오, 1985.

Siggins, Ian D. *Martin Luther's Doctrine of Christ*.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0.

Watson, Philip S. *Let God Be God: An Interpretation of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프로테스탄트 신앙원리』 이장식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0.